



**현대차, 전기차 디자인 핵심 '픽셀 바이 픽셀' 선보**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디자인 핵심 디자인 정체성 중 하나인 '픽셀 디자인'을 알리는 캠페인 영상 '픽셀 바이 픽셀'을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1일 현대차에 따르면 '픽셀(Pixel)'은 전기차 라인업의 가장 핵심적인 디자인 요소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융합해 세대를 관통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현대차



**효성, 베트남에 의료봉사단 '미소원정대' 파견**  
효성이 베트남에 해외 의료봉사단을 파견했다. 효성은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베트남 동나이성에 '미소원정대'를 파견했다고 11월 1일 밝혔다. 미소원정대는 효성 임직원과 고려대 안암병원 의료진, 국제구호단체인 희망친구 기아대책 등 74명으로 구성됐다. 현지 지역 주민 1700여명에 무료 진료와 지역 주민 출산 교육 등 다양한 의료 봉사 활동을 진행 중이다. /효성



**맥도날드, '35년 브랜드 스토리' 수익금 전액 기부**  
맥도날드가 창립 35주년을 기념해 출간한 사사(社史) '한국 맥도날드 35년 브랜드 스토리'의 판매 수익금 전액을 한국R MHC에 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 맥도날드 본사에서 (왼쪽)김기원 대표이사과 한국R MHC 제프리 존스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R MHC 측에 사사 판매 수익금 전액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맥도날드



**코웨이, 임단협 마무리... 2년 연속 무분규 타결**  
코웨이 노사가 2년 연속으로 무분규·최단기로 임금협약을 끝냈다. 1일 코웨이에 따르면 올해 7월 회사와 코웨이지부가 2023년도 임금협약 교섭을 시작해 지난달 6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후 조합원 투표에서 91.85% 찬성으로 최종 타결됐다. 서장원 코웨이 대표와 임창경 코웨이지부 지부장이 임금협약 교섭을 끝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웨이



**조장천 인하대 교수, 미생물학회 학술대상 수상**  
인하대학교는 조장천 생명과학과 교수가 2023년 '학술대상(운봉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정용석 한국미생물학회 회장(왼쪽)과 조장천 인하대 생명과학과 교수(오른쪽)가 학술대상 수상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인하대

# 한평생 먹는 음식의 섭취량은 어느 정도일까



**연운열의  
자유보감**

삼국유사에 “왕은 하루에 드시길 쌀 3말과 꿩 9마리를 잡수셨는데, 경신년에 백제를 멸망시킨 뒤에는 점심은 그만두고 아침과 저녁만 하였다.”라고 나온다. 18세기 말 편찬된 이덕무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 따르면 조선시대 남자는 한 끼에 7홉을 먹고 여자는 5홉, 아이는 3홉을 먹는다고 기록하였다. 현재 사용하는 일반적인 밥그릇은 350g정도의 용량에 불과하지만, 출토된 유물로 보아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밥그릇의 크기는 조선시대에는 690g, 고려시대에는 1040g, 고구려 시대에는 무려 1300g의 밥그릇이 발굴되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양곡(양식으로 쓰는 곡식)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이 1년 동안 먹는 쌀의 양은 56.7kg이다. 이를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1인당 하루에 155.5g의 쌀을 소비하는 셈이다. 영국의 익스프레스지가 궁금증을 해소하는 '놀라운 인간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인간과 관계된 통계 몇 가지를 소개하면, 사람은 평생 35톤의 음식을 먹는다. 평생 동안 평균 7만 잔의 커피를 마신다. 스펀 통조림은 평균 4초에 한 캔씩 뚜껑이 열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민 1인당 평균 하루 식품총섭취량은 1048g으로 1kg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2020년 1월 기준 평균수명이 82.8세로 평생 약 3만일(365일×82.3세)동안 먹게 된다고 가정할 때 필자가 계산한 바로는 우리가 일생 동안

먹는 음식량은 무려 30톤으로, 1톤 트럭으로 약 30대분을 먹어 치운다. 현재 전세계 인구가 80억명을 초과했으니 한국인이 소비하는 섭취량으로 대입해 보아도 대략 전세계인이 하루에 먹어치우는 음식의 양은 무려 800만톤에 이른다. 800만톤의 음식을 만들고 폐기하기 위해서 농수축산물의 재배, 생산, 가공, 포장, 원거리 수송, 폐기물처리 등 공급망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의 뇌와 소화기관, 지방의 저장 상태 등 신체내의 복잡계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거식증 환자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음식을 보는 순간,

식이 유발된다. 2시간 정도 위가 비어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 수치가 상승한다. 위가 팽창하고 혈류에 포도당이 증가하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변하여 다시 지방으로 바뀐다. 지방세포에서 배고픔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분비된다. 식사 후에는 더 많은 렙틴 호르몬이 분비되어 배가 부르다고 느껴짐에 따라 뇌의 시상하부에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전달하게 된다. 그런데 렙틴 호르몬은 약으로 다량 복용해도 우리의 신체는 재빨리 적응하여 렙틴에 더욱 둔감해지기 때문에 약에 의존하기보다 식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한끼 또는 하루 정도 (간헐적) 금식을 함으로써 지구도 살리고 내 몸도 건강해짐으로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 최태원 회장 “주주·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중심 거버넌스 혁신”

(SK그룹)

**SK 디렉터스 서밋**  
이사회 중심 경영강화 논의  
최 회장, 역할·방향성 제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사외이사들이 만나 이해관계자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을 결의했다. SK그룹은 10월 31일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SK 디렉터스 서밋'을 개최했다고 11월 1일 밝혔다. 이 자리는 14개 관계사 사외이사가 참석해 이사회 견제와 감독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거버넌스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결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주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 확대도 약속했다. 특히 최태원 회장도 '거버넌스 스토리의 미래'를 주제로 한 패널 토의에 직접 참여해 이사회 역할과 방향성에 의견을 제시했다. SK사외이사들은 구체적으로 이사회 산하 감시위원회가 회사 내부



최태원 SK그룹 회장(가운데)이 지난달 31일 서울 광진구 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SK 디렉터스 서밋 2023'의 패널토의 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SK그룹

감사 기구를 직접 감독해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사회가 수립한 정책과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도 갖추기로 했다. 또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도 신규 비즈니스 통찰력을 높이고 사전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감사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확인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을 확대하기 위해 주주와 투자자 등과 소통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추진하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이사회 중심 경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이사회는 CEO(최고경영자)가 균형감이 있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활동 전

반에 대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회가 임원 및 구성원들과의 소통 활성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회사의 문제와 불편을 해결하고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 승명호 동화그룹 회장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승명호 동화그룹 회장(사진)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릴레이 캠페인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동참한 승명호 회장은 다음 참여자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지목했다. 승 회장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지동섭 SK온 대표, 은탑산업훈장 수훈

국내 배터리 산업 성장 기여  
지동섭 SK온 대표이사 사장이 '제3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는다.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은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지난 2021년 창립 10주년을 맞아 국가전략산업인 배터리 산업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11월 1일을 배터리 산업의 날로 지정한다. 지 대표는 현대차그룹, 포드,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부터 누적 기준 29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글로벌 수주'를 실현하고, 2019년 6903억 원이었던 배터리 사업 매출액을 3년 만인 2022년 7조



6177억 원으로 11배 이상 끌어올리는 등 국내 배터리 산업 성장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 대표가 부임한 2019년 이후 미국, 유럽, 중국 등 공장을 가동하거나 건설을 개시해 글로벌 생산체계를 공고히 구축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국내에서 2481명을 추가 고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외 생산 기지에 90% 이상 국산 설비를 도입하는 등 국내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인사**
- ◆**하나증권** ◇부사장 선임 △IB그룹장 정영균
  - ◆**DL케미칼** ◇사장 승진 △유화사업본부장 부사장 김길수
  - ◆**투데이코리아** △사장 겸 대기자 박성태
  - ◆**대한경제신문사** ◇신임 대표이사 사장·발행인 선임 △대한경제 전무 유일동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단장 △디지털경제사회연구단장 이재영 △디지털인프라·서비스연구단장 김민철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학고장 임명 △국립등산학교장 민병준
  - ◆**광주일보** △정치총괄본부장 최권일

**부음**

▲오홍주씨 별세, 오동석(프로축구수원삼성 단장)씨 누나상 = 1일, 경기안산단원병원 장례문화원 3층 특실, 발인 3일. 031-410-4444